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9월 23일)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뭣이 단청이고 단풍일까? 가을이 깊어간다. 단청은 불전을 장엄하고, 단풍은 사바를 장엄한다. 어느 것이 단청이고 어느 것이 단풍인가? 깊어가는 가을 속에 단청과 단풍이 마주하고 있다. 사진은 10월 25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 산령각 단청과 마주한 가을 단풍 모습. **양평 용문사=박재완 기자**

여말선초 구결담긴 15세기 '법화경' 공개

법응 스님, 22일 기자회견… 진품명품 방영도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 구결과 한글 손 글씨가 담긴 〈법화경〉이 공개됐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와 조선시대 구결과 15세기 한글 손 글씨가 다량으로 담긴 〈법화경〉을 공개했다. 앞서 10월 21일에는 KBS 1TV 'TV쇼 진품명품'에 공개하기도 했다.

구결은 한문에 토(吐)를 넣어 읽는 한국적 한문독법으로, 이는 우리말 변천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 법응 스님 소장 〈법화경〉을 연구하고 있는 장경준 고려대 국문과 교수는 방송에 출연해 "출품된 〈법화경〉은 우리말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장경준 교수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구결은 방법이 다르다. 해당 〈법화경〉은 이런 고려와 조선시대 구결이 모두 같이 들어있다"면서 "다른 사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결이 많다. 연구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서지학적으로 분석했던 다른 감정위원은 "출품된 〈법화경〉은 15세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낙장과 훼손이 있지만, 구결과 한글 손 글씨는 매우 중요한 자료여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화경〉을 살펴봤던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도 그 가치를 인정했다. 이도흠 교수는 "최소한 3차례에 걸쳐 구결과 국문이 쓰여졌다. 세 시기의 언어가 담긴 것"이라며 "중세 국어에서 사라진 단어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언어의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어 국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이 공개한 〈법화경〉의 첫 부분.

고려 · 조선기 걸쳐 작성
당시 구결 모두 기록돼
"국어 변천 확인할 자료"

소장자인 법응 스님은 해당 〈법화경〉 영인본을 대학 전문 연구기관과 학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응 스님은 "공개된 〈법화경〉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이 같이 구결과 초기 한글이 담긴 경전들이 발굴돼 한글 창제와 발전에 불교가 기여한 바가 증명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만공 뺀 만해 선양, 선학원 정체성 저해"

김광식 교수, 現선학원 지나친 만해 선양 비판

'선학원 미래를 열다' 주제로 선학원미래포럼 2018 워크숍

金 "선학원 창건주역은 만공"
한용운은 선학원 주석하면서
계몽 · 불교대중화 등에 힘써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법인관리법 제정으로 촉발된 조계종단과 선학원의 대립이 수년간 이어지는 가운데, 선학원이 창건 주역인 만공 스님을 배제한 채 만해 스님 선양사업에 치중하며 선학원 정체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간월암 · 정혜사 소유권을 두고 선학원과 수덕사가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선학원이 의도적으로 수덕사를 중창한 만공 스님 업적을 깎아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10월 25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서 선학원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2018 워크숍에서 '선학원 정체성의 재인식-만공과 한용운, 계승의 문제'를 주제로 이 같이 발제했다.

만해가 선학원 설립 조사?

김 교수는 이날 최근 완공된 선학원 100주년 기념관의 상량문을 중심으로 선학원 정체성과 관련된 3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선학원 설립조사에 만해 한용운을 포함한 점 △만공을 설립조사 후반부에 배열한 점 △선학원이 조계종을 1962년에 탄생시켰다는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선학원은 1921년 8월 10일 공사를 시작해 그해 11월 30일 준공됐다. 하지만 한용운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럼에도 한용운을 선학원 설립조사로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역사적 오류"라며 "상량문에 설립조사를 만해 · 용성 · 남전 · 도봉 · 석두 · 만공 · 성월 순으로 배열했다. 하지만 1986년 선학원 이사장이던 범행이 만든 〈선학원 약사〉의 인사말에 (공로자를) 백용성, 송만공, 김남전, 강도봉, 김석두, 오성월, 한용운, 김적음 순으로 설명한 것이 정직한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조계종단이 1962년 창종된 것은 아니기에 선학원이 조계종을 탄생시켰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자 몰역사성이다. 조계종은 선학원 창건 당시, 또 그 이전 불교종단들을 계승했다"면서 "선학원이 현재 조계종과 대립하는 현실이라고 해도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만공 스님이 선학원 창건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에 따르면 만공 스님은 1921년 5월 선학원 건립비용을 모금하기 위해 석왕사포교당에서 열린 보살계 계단에서 사찰령 체제와 무관하게 승려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선방을 만들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1935년 3월 7일 열린 수좌대회 보고에서도 "송만공, 백용성, 오성월, 강도봉의 발기로 선학원을 창립하다"라고 전해진다. 이외에도 만공 스님은 선학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계모임 성격의 선우공제회 출범 직후 수도부 이사를 담당하면서 토지를 기부하고, 현재 선학원 3층 법당 불상을 직접 흙으로 빚는 등 선학원 창건 주역이라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역사적 균형 갖춰야"

그렇다면 만해 한용운은 어떨까. 김 교수는 "한용운이 1922년 초 유점사 포교당에서 선학원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선학원 사업에 동참했다. 주체는 아니었고 합류하는 성격이었다"며 "선학원을 주된 거처로 활용하면서 불교 · 계몽 · 문학활동 등을 펼쳐 선학원의 한용운이 홍보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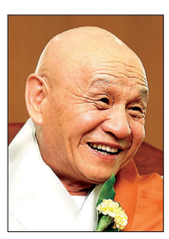
김 교수는 이어 한용운이 선학원에 머물며 일제강점기 식민지 불교정책을 부정하고, 불교청년운동과 불교대중화에 헌신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용운의 독립운동, 민족운동, 대중활동이 선학원 역사에 일부 편입될 수는 있다. 하지만 한용운 역사 전체를 선학원에 유입시킬 수 없음은 상식적 이해다. 상식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흐름이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며 현재 선학원의 만해 선양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선학원 100주년 기념관 입구에 세워진 한용운 동상은 위치를 이동하든가, 만공 동상을 만들어 균형을 이루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선학원의 역사 및 이념 정비에서 만공을 적절하게 강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학원의 선양사업은 의도적 · 편의적으로 몰역사의식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한 선학원 답변을 듣고자 연락했으나 들을 수 없었다.

'설악산인' 무산 스님 은관문화훈장 수훈

문체부, 24일 시상식… 시조문학 발전 공로



지난 5월 26일 원적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 스님〈사진〉이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8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 수훈자 19명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8명 등 32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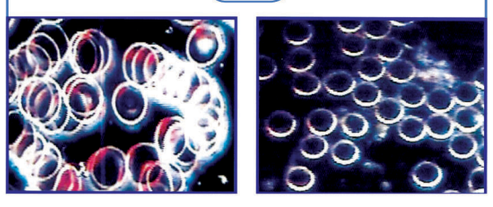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무산 스님은 시조 시인으로서의 업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무산 스님은 1968년 '시조문학'에 등단한 이후 시집 〈아득한 성자〉 〈비슬산 가는 길〉 〈적멸을 위하여〉 〈마음 하나〉 등을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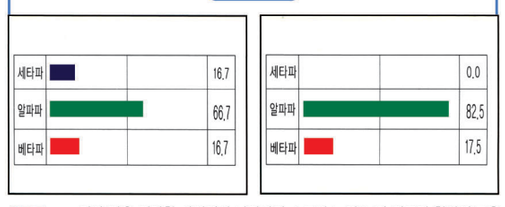
또한, 무산 스님은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만들어 〈유심〉지를 복간하는 등 한국문학 중흥의 장을 열었으며, 만해 사상을 계승해 국내외 문화 교류에도 적극 기여했다.

한편, 무산 스님과 문화예술공로자를 위한 시상식은 10월 2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열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BLOOD MATE® (비누)가 세포속으로 들어가 피를 맑게하고 뇌파를 안정시키며
대장균·포도상구균을 99.9% 항균한다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 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적혈구

연전현상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사용전 사용후

뇌파 측정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사용전 사용후

대장균


사용전 사용후 99.9%

포도상구균


사용전 사용후 99.9%

BLOOD MATE®
항균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뇌파가 정돈,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 삼강 ☎ 02)353-9692 / 010-2791-3696